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03호 발행일 : 2004년 11월 7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다음주일은 Vision Sunday

비전팀,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구체화

청소년사역 연간 연구보고서와 자료집 발간 계획

다음 주일(11월 14일)은 비전주일(Vision Sunday)로 지킨다. 청소년사역의 비전을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비전팀에서 지난 1년동안 준비했던 “청소년사역 연구보고서”와 자료집을 발간한다.

비전팀은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우리교회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지난 1월에 모임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18차례의 모임, 6차례의 강사초청, 2차례의 현장탐방, 7차례의 기도모임 등을 가지면서, 청소년사역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교회가 감당해야 할 청소년의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동안 포괄적으로 논의했던 청소년사역을 정리하면서, 교회에 제안할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대안학교, 영성캠프사역, 리더십스쿨, 교회학교 사역, 학원사역, 타기관과의 네트워킹, 인터넷사역, 상담사역, 문화사역, 중보기도사역 등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몇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직접 추진할 사역과 협력 내지 지원할 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하되, 우리 교회가 직접 추진할 사역 가운데 3대 중점사역과 관련 사역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3면에서 계속)

어와나클럽 학부모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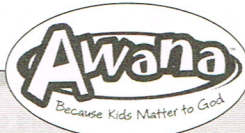
6-8세 자녀들 부모님 오세요

다음주일 오후 1시 소예배실

어와나 클럽이 이제 곧 오픈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리더교육과 실습과정, 리허설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12월 4일 토요일(장소: 3층 소년부실)에 어와나 클럽이 오픈한다.

클럽 오픈에 앞서 학부모님들께 어와나 클럽을 소개하고, 앞으로 클럽미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위해 학부모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3면에서 계속)



일본만도린 합주단,

오늘 4부예배 내한공연



일본 다마 만도린 합주단 38명이 이번 주일 11월7일 오후1시30분, 4부예배 시간에 대예배실에서 내한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다마 만도린 합주단은 1985년도 일본 동경도 고마에시에서 만도린과 기타를 하는 주부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였다. 다마(TAMA)라는 이름은 고마에시 옆을 흘러내려가는 강의 이름을 따서 정했다고 한다. 1985년도부터 아마모도 선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달에 두번 수

요일에 모여서 연습했다.

매년 고마에시에서 주최하는 초여름의 음악회에 참가하면서 2년에 한번씩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주님의교회에서 제1회 서울연주회를 갖기 시작해서 이번으로 5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울연주회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한국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으며, 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주일 프로그램은 전체 3부로 진행

되는데, 1부는 만도린합주단의 단독연주가 있게 되고, 2,3부는 중현교회 성도 25명으로 구성된 호산나합주단과 함께 합동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물로 받은 세례, 불로 성령 받기를 기도해

11월3일(수)에 중예배실에서 열린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세례식 및 입교식을 가졌다. 이호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번 예식에서는 총 26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2명의 성도는 입교하였다.

(3면에서 계속)



군부대 세례식/ 이인호목사메시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백술, 최창섭 장로와 여러 명의 권사, 수요 찬양단 할렐루야와 여러 성도들과 전방 신병교육대로 향해 달려갔다. 육군 승리부대는 박진수 안수집사가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는 곳으로 다소 거리는 멀어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이동하는 곳곳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흔적을 보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은 우리의 가슴에 물들어 더욱 짙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었다. (3면에서 계속)

이단열 집사 독창회

세종문화회관서 베토벤 가곡 불리

2004년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음악춘추사 · 월간 「음악춘추」초청 기획 연주회로 이단열 집사의 독창회가 있었다. 이단열집사는 2부 시온찬양대에 솔리스트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단열 집사는 이번 독창회에 L.v. Beethoven의 가곡 중 사랑시의 미적열정이 회화음악같이 표출된 곡들을 맑고 균형있는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음악사의 첫 번째 연가곡인 An die ferne Geliebte Op.98(멀리 있는 연인에게)의 6개 곡과 Adelaide Op.46(아델라이드), Lieder von Goethe(괴테 시에 의한 가곡)에서 Wonne der Wehmut Op.83 Nr.1와 다수, Aus 6 Lieder von Gellert Op.48(겔러트의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에서 2곡을 불렀다.

개인 교적자료 열람은 이번주일부터 2주간입니다.

교적자료 열람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이번주일 오전 8 : 30부터 오후 2 : 00까지 1층 좌우복도에 2주간 교적 자료를 게시합니다. 사진을 제외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수정 바랍니다.

양육클래스탐방/그리스도인과 생활법률 시사적인 법률문제 성경으로 풀어

양육과정중 하나인 '그리스도인과 생활법률'은 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이며 강사는 현직 변호사이신 김완중 장로이다. 지난주일(31일)에는 '교통사고의 법률문제'와 '성매매(성폭력)의 법률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사례를 본 후 그것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통 법규 준수의무에 관한 성경구절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과 다른 생활법규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성매매(성폭력)의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성매매와 성폭력에 관해 나타난 구절을 읽어보고, 현재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사항들을 살펴 보았다. 오늘(7일) 수업시간에는 '임대차관계'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이다.

청년부MT
절정을 이룬 가을산에서
보낸 꿈같은 1박

청년2부(80년생 이상 청년)는 10월 29일부터 30일 1박 2일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광전원교회로 MT를 다녀왔다. 윤은성 청년부 담당 목사와 청년부 부장 최상인 집사가 참석하여 총 21명이 진광전원교회로 향했다. 진광전원교회는 지난해 봄MT도 그곳으로 다녀온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8시에 출발하여 1시간정도 걸려 도착해 선발대가 준비한 저녁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었다. 이번에 새신자 2명이 참여하여 서로를 간단히 소개하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권혁준 형제가 이끄는 게임으로 팀을 이뤄 어린이처럼 뛰는 후에도 모여서 게임을 하며 새벽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30일 9시까지 기상해서 자유롭게 식사를

마련해서 먹은 뒤 농구와 배드민턴을 치고 노랑게 빨강게 물든 가을산과 나무를 배경으로 멋지고 예쁜 사진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 점심식사를 위해 남녀 할 것 없이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밥을 짓는 등 함께 만들고 식사한 뒤 오후 3시가 되자 오랜만에 공기가 맑은 전원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차에 올랐다.



예수전도단 주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11월 13일에 2004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마치게 된다. 끝까지 기도로 참여하여보자.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수확한다는 말씀을, 가을의 계절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하자..

2004년 11월 7일 일요일(24일)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을 토대로, 나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갇혀 있다고 여기자. 무슬림의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겪는 박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가족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자 취급하며 비난한다고 상상해 보라.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무슬림 세계에서 이같은 압박에 홀로 버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가족을 배신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배반하는 일이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정부의 인정

과 승인으로 다른 무슬림들과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수 세기 동안 믿음을 지켜온 교회들 역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과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서, 배우자와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하자.

2004년 11월 8일 월요일
발루치 종족

로마서 10장 12-17절 말씀을 붙들고, 발루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들 일꾼들의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시고, 발루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하자. 대부분의 발루치 여성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도록 고립되어 있다. 여성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발루치 사람들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강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자.

발루치 성도들이 비록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들이 더욱 번성하여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자(창 13:24, 신 8:18)

2004년 11월 9일 화요일
인도의 라자스탄 주

라자스탄의 교회들이 무슬림 공동체에게 복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많은 교회들이 두려움과 무관심으로 묶여 있다. 성령께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하자. 현재 라자스탄의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라자스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가리브 나와즈의 무덤가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힘과 치유를 갈망하는 라자스탄의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통합아동부 레인보우

AWANA(어와나)로 드러진 예배

10월 31일 주일, 레인보우 통합아동부 예배는 곧 주님의교회에 시작 될 AWANA로 드러졌다. AWANA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는 의도였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모두 재미있고 좋았다는 반응이다. 통합아동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임순서가 시간도 많고 팀을 나누어 좀 더 체계적이었기 때문인지 매우 흥미로워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정정당당함과 동기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핸드북 시간에는 성경암송을 하였는데, (사진은 종이에 적힌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른들도 잘 하기 어려운 성경 암송을 초등학급 1,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해내는 것이 무척이나 대견스럽다. 교제시간을 통해 오늘의 말씀이 끝난 후에 팀 별로 시상식을 가졌다

매 순서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고, 어린 이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보였다. 교사들도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자연스럽게 눈높이를 맞추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번 예배는 시험삼아 드러진 것이긴 하지만, AWANA가 도입이 된다면 교회사역 안에 어린이 훈련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 기도



아버지.....
진정한 영웅으로
가득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1면에 이어서)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 학부모 설명회

11월 14일(일) 오후 1시 소예배실

학부모 설명회는 이번에 열리게 될 SPARKS(불티단) 클럽에 속하는 연령(2004년 현재 취학 전 2년~초등학교 1년)의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클럽에서 함께 봉사하고자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참석도 적극 환영한다. 학부모 설명회는 11월 14일 주일 오후 1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녀를 클럽에 입단시키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학부모설명회를 통해 입단신청서를 배부할 예정이니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2월에 오픈되는 SPARKS(불티단) 클럽은, 정규학교 입학 2년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불티단은 성경구절에 견고히 기초를 둔 3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3년 동안 세 권의 핸드북을 마치게 된다. 3권의 핸드북을 통해 아이들은 68구절을 배우고 암송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불티단 클럽미팅은 학습과 재미를 결합시켜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참석하고자 하는 열의를 일으킨다. 불티단 클럽미팅은 3가지 시간으로 나누어진다.



■ “게임시간”

(어와나 정규 게임트랙에서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한다.)

■ “핸드북시간”

(소그룹에서 각 팀의 훈련된 리더 선생님들께 암송 구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동안 암송한 말씀을 일대일로 체크받는다.)

■ “푸른초장시간”

(클럽원들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삶 속에서의 간증을 자발적으로 나누며 찬양하고 그 날의 활동에 대한 시상식을 한다.)

4부예배 새벽이슬을 소개해요



새벽이슬은 청년부 예배사역팀으로 주님의교회 4부예배 경배와 찬양, 그리고 지난 달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토기모임을 담당하고 있다.

위십리더에 송광수 형제와 보컬팀(남성, 여성), 밴드팀(건반, A. 기타, B. 기타, 드럼, 색소폰 등), 엔지니어팀(음향, 영상)이 구성되어 있고, 현 인원은 20명이다. 멤버들은 공개오디션을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오디션은 해마다 2월과 8월 두 번이며, 고교 졸업생 이상의 나이라면 누구나 오디션에 응할 수 있다.

4부예배와 토기모임 외에 토요일마다 정기적인 연습을 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및 자체 행사도 꾸준히 갖고 있다.

위십리더는 송광수형제이며, 밴드팀으로는 건반(main) 김은혜, 건반(sub) 이지연, 드럼 박성관, A.기타 박영용, B.기타 심명보, 색소폰 윤빈, 플루트 이화준, 클라리넷 김정수로 총 8명이다. 보컬팀 남성은 이수암, 이성주, 송지영이며, 여성은 박성희, 최성은, 맹예령으로 구성되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엔지니어팀이 수고하고 있다. 음향에는 유호진과 윤영지, 영상에는 옥윤화, 이미혜, 윤연준이다. 특히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셋째 주 토요일 토기모임은 저녁 7시 소강당에서 찬양에 목마르고, 찬양을 많이 하고 싶은 성도들을 향해 열려있다.

3남선교회 부부동반나들이

남한산성 가을 단풍찾아

3남선교회 (50년~54년생)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후 남한산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번 정기모임은 부부동반으로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인근의 남한산성을 찾아가 가벼운 산책을 겸한 친교모임이었다. 주안에서 공동체적 교제를 통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알게하자'는 금년도 3남 주제에 맞게 회원 사모님(?)들을 모시고 부부동반을 하였는데 사정상 '나홀로' 오신 회원들도 있었지만 50대 나이에 오신 '성의 평준화(?)' 때문인지 하나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산성 주변을 걸으며 주고 받는 대화는 서로를 알기에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 중간쯤에 있는 쉼터 벤치에서 빙 둘러 앉아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나홀로 오신 회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웃음이 이어졌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50대가 되면 아내들이 무서운 호랑이(?)로 변한다는 일반 속설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자상하고 너그러운 아내라는데 의견을 모았고 여직사님들도 동의(?)하였다. 저녁 애찬을 나누면서 계속되는 대화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보는 사회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전개 되었고 한편으로 여회원들은 생활속의 지혜를 나누는데 일가견들이 있었고 봉사부서를 소개하고 권유하는 모습도 아름다워 보였다. 가는 길은 좀 막혔지만 돌아오는 길은 가을 밤공기처럼 시원하게 달렸다.

(1면에 이어서)

군부대 세례식/이인호목사메시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무마다 젖어있는 저 단풍처럼 우리 신앙도 더욱 성숙하여지는 계절이 되었으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행은 어느 덧 목적지인 신병교육대대에 도착했다. 교회건물이 흰색으로 장식되어 다소 포근하고 사단 임광상 목사님은 10년 만에 만나 더욱 반가웠다.

이인호 목사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시작되었다. 당나귀를 고개를 숙인채 바보처럼 앞으로 간다. 그러나 경주마는 두 눈을 부릅뜨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간다. 우리는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얼마 못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달릴 때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 진정한 방향과 가야할 길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며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참된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설교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설교에 이어서 신병 225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이전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의교회 목사, 군교회 목사의 세례식이 진행될 때 찬송도 부르고 어느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였다. 최창섭 장로의 멋드러진 트럼펫 연주와 수요 찬양대 할렐루야의 아름다운 찬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은혜와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1면에 이어서)

다음주일은 Vision Sunday

지난 주일(10월 31일)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는 청소년사역을 위한 초청강연 두 번째 강연이 열렸다. 『기독교사로서, 청소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수환 선생 (동대문중학교, YDCF대표간사)의 강연이 있었다. 강선생은 생명을 얻은 간증과 함께 기독교사의 사명과 기쁨을 열정적으로 전하였다. 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기독교학생반을 조직하여 학생들을 양육하고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제시해주었다. 그리고 기독교사모임을 통해 교사들이 먼저 훈련되고 좋은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사역 세 번째 초청강연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11월 10일) 오후 7시 30분 수요성경공부 시간에 중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김영애 사모(한동대학교)를 초청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는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부인인 김영애 사모는 「갈대상자」(두란노, 2004)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한동대의 10년 역사와 함께 했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오늘 이 민족의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강연이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물로 받은 세례, 불로 성령받기를 기도해

세례식을 주관하신 문동학 목사님은 세례받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세례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4분의 성도가 직접 나와 간증을 해주었고, 나머지 분들의 간증은 영상을 통해 보여주어 증인으로 나온 다른 교인들도 간증인들의 은혜로운 고백을 통해 감동을 함께 나눴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이런 특권을 받는 이들은 그 동안의 죄를 세례를 통해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김받게 된다. 이번 세례식을 통해 영적탄생의 기쁨을 맛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인 영적인 산파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세례예식을 마쳤다.

교회소식

1. 만도린팀 초청 연주회

일본 만도린팀 초청 연주회가 오늘 4부 예배시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 다음주일은 비전 주일 (Vision Sunday)

다음 주일(14일)은 비전 주일(Vision Sunday)로 지킵니다.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 비전팀이 준비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3. 청소년 사역을 위한 초청강연

청소년 사역을 위한 초청강연이 이번주 수요일성경공부 시간(10일 오후 7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영애 사모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연합니다.

4. 유아세례를 위한 부모교육과 문답

유아세례를 위한 부모교육과 문답이 오늘부터 28일(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있습니다(유아세례식은 12월 1일(수) 오후 7시 30분 수요일성경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어와나클럽 오픈일정

어와나 클럽(AWANA CLUB)이 12월 4일(토)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11월 14일(주)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학부모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6-8세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큐멘터리(최충선할아버지) 영상 판매

지난 10월 24일 상영된 다큐멘터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최충선 할아버지이야기>를 오늘 1층 자원봉사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모임

수요 찬양 할렐루야팀 예배인도, 승리와 고난과 약속의 주님

예수전도단 예배팀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선교차 출발하여 이번 11월 4일 목요모임은 주님의교회 할렐루야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했다. 주님의교회에서 초청한 홍민기 목사(노량진 강남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임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능력, 승리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승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희생, 핍박은 반드시 필요하며 따른다. 부활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왜 생각지 않는가? 귀국해서 한국의 도덕적 타락에 놀라웠다. 영적 막장을 떠야 하는데 오히려 체념하고 익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오히려 일이 안되고 힘들 수 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또 약속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약속대로 살아가야 한다. 홍민기 목사의 메시지는 미지근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남들 마시는 술 안마신다고, 시간과 물질을 더 드린다고 하나님께 과연 헌신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세계를 보고 계신다. 지금 브라질 깊은 산골 100명이 사는 원주민집단에 들어가 선교하는 한국인이 있다. 그는 아이들도 데리고 아예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그들과 생활한다.

자녀들의 교육도 포기하고 아이들이 원주민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똑같아지며 하루 한끼로 연명하며 이빨도 다 빠진채 복음을 위해 산다.

또 우간다에 있는 2명의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 쾅쾅 묶여 산벼랑에 떨어지는 처벌을 받아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고도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한다."

2005년 교회요람 안내

1. 모든 교우들은 사진촬영에 협조 바랍니다.

다음주일(11월14일)까지 모든 교우들은 사진촬영에 협조바랍니다.

사진촬영 개인별 소요시간은 30초 정도입니다.

1층 월만한 물가 옆에서 오전 8:30부터 오후 2:00까지입니다.

2. 교인표기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년이상 교회출석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내년요람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출석확인되면 이듬해 요람에 실립니다.
- ② 동명이인 교우의 이름뒤의 A,B는 그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다시 조정합니다.
- ③ 타교회에서 장로임직한 경우, 이명서류를 사무실로 내어주시면 당회승인 후 협동장로로 표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분란을 비워둡니다.

주님의교회
2005교회요람위원회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1시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월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메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